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예배 시간 변경 안내
주일예배 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부 예배 - 오전 9시 30분 (장소: 본당)
2부 예배 - 오전 11시
* 미국교회는 6월 23일 주일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 2019년 봄 학기 성경공부반 종강 안내
이번 주를 끝으로 봄 학기 성경공부를 마칩니다. 만화교회론 성경공부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을학기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 친교 안내
오늘 친교는 이관기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친교는 룬아일랜드 구역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이번 달 구역모임은 쉽니다. (구역 헌금만 준비해 주세요)

6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6/16		이관기	이관기 집사 가정	한순자
6/23	배한우	권이남	룬아일랜드 구역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지하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5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5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본문: 요나서 1장 11~16절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게 하소서

2.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하소서.

3.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 두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찌하시기를 그 누구보다 잘 살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나게 됩니다.

1.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요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앗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나가 사명을 받게 되는데,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기에 빨리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앗수르가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요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요나는 먼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머리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요나의 마음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2. 요나를 좇아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을 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서로 다르면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마음이 맞지 않는 요나를 다른 선지자로 마음에 잘 맞는 선지자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같으면 싫다고 하면 요나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충성된 일꾼을 찾아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좇아가시고, 그가 다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3. 이기적인 요나와 선한 선원들

우리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요나가 싫어했던 이방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이방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체비를 뽑게 되었고, 그 원인이 바로 요나 선지자인 것이 밝혀졌을 때, 13절에 보면 이방 선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니까? 바로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네 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했다"라고 요나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 폭풍의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요나 선지자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그런 선한 이방 선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선한 이방 선원들의 모습!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나가는 말

조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갈 때보다 더욱 고국의 소식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혹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마음이나 천대적인 감정으로까지 자라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애국심도 결국 이기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 헌금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기도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이관기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50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0번(시편 91편)		
찬 송 Hymn	431장		
기 도(Prayer)	허도행 집사		
성 경 Scripture	요나서 1장 11~16절		토요 새벽기도회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요한1서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설 교 Message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 헌 금 Offering	71장		
▲ 찬 송 Hymn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구역 후원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